2017. 3. 27. (월) 언론보도

한겨레

2017년 03월 27일 (월)
13면 사회

DMZ 달리는 자전거 '비무장지대(DMZ) 자전거 투어'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민통선 지역을 달리고 있다.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 등 17.2㎞를 도는 이 행사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열리며, 경기관광 누리집(www.ggtou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파주/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3.4 X 8.5 cm

경인일보

2017년 03월 27일 (월)
04면 종합

DMZ 따라 안보페달 '쌩쌩' 26일 오후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각에서 열린 올해 첫 'DMZ 자전거 투어' 행사에 참가한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DMZ 일원을 자전거로 달리며 안보의식을 되새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임진각 평화의 종각에서 출발해 통일대교를 지나 초평도 인근을 거쳐 다시 임진각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17.2㎞의 코스를 달렸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17.6 X 11.3 cm

기호일보

2017년 03월 27일 (월)
02A면 종합

2017 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5월 27일 연천~강원도 철원 구간 개최
5월 10일까지 선착순 2200명 모집

총 62㎞ 페달 밟으며 쌩쌩~ 민통선 안쪽 봄 기운 만끽

경기도는 강원도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7 Tour de DMZ(뚜르 드 디엠지) 자전거 퍼레이드'가 5월 27일 연천~강원 철원 구간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뚜르 드 디엠지는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에서 처음 개최한 행사로, 2015년부터는 도와 강원도가 DMZ의 생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경원선 대광리역, 백마고지역을 지나 철원 DMZ평화문화광장을 반환점으로 다시 연천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62㎞ 코스에서 펼쳐진다. 이 중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15.6㎞ 구간도 개방돼 평소에 볼 수 없는 민통선 내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자전거 퍼레이드 외에도 군악대 공연, 치어리딩, 인기가수 초청 공연, 경품추첨 등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5월 1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tourde-dmz.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2천20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만5천 원, 전용 수송열차와 버스를 이용하면 3만 원이다. 사전에 신청할 경우 현장에서 자전거도 빌릴 수 있다.

이재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뚜르 드 디엠지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상생 발전하자는 협력의 상징"이라며 "평소에 가기 어려운 DMZ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 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자전거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경기관광광공사(☎031-956-8307).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5.0 X 16.4 cm

경기일보
2017년 03월 27일 (월)
02면 종합

'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함께 달려요

오늘부터 참가자 접수 시작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7 Tour de DMZ(뚜르 드 디엠지) 자전거 퍼레이드'가 27일부터 참가자 접수를 시작했다.

뚜르 드 디엠지는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고자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한 행사로, 2015년부터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DMZ의 생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매년 출발점을 순환 개최하기로 협의해 지난해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출발해 경기도 연천을 돌아오는 코스로 전국 각지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행사는 5월 27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연천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참가자는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 대광리역과 백마고지역을 지나 철원 DMZ평화문화광장을 반환해 다시 연천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62km 코스를 달린다. 특히 주행코스에는 민통선 구간 15.6km이 포함돼 있어 평소에 볼 수 없는 민통선 내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참가는 오는 5월 1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tourde-dmz.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일반은 1만5천 원, 수송열차와 셔틀버스를 이용할 때는 3만 원이며, 사전 신청하면 현장에서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다(대여료 별도).

정일형기자

10.8 X 10.7 cm